

신앙과 삶과 학문의 삼각구도

조금은 이른 정년퇴임을 한
강영안 서강대 명예교수를
발행인 김승욱(중앙대 교수) 교수가 만났다.

🗣 Interviewer_김승욱(중앙대 교수)



김승욱(이하 김):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은퇴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좋으실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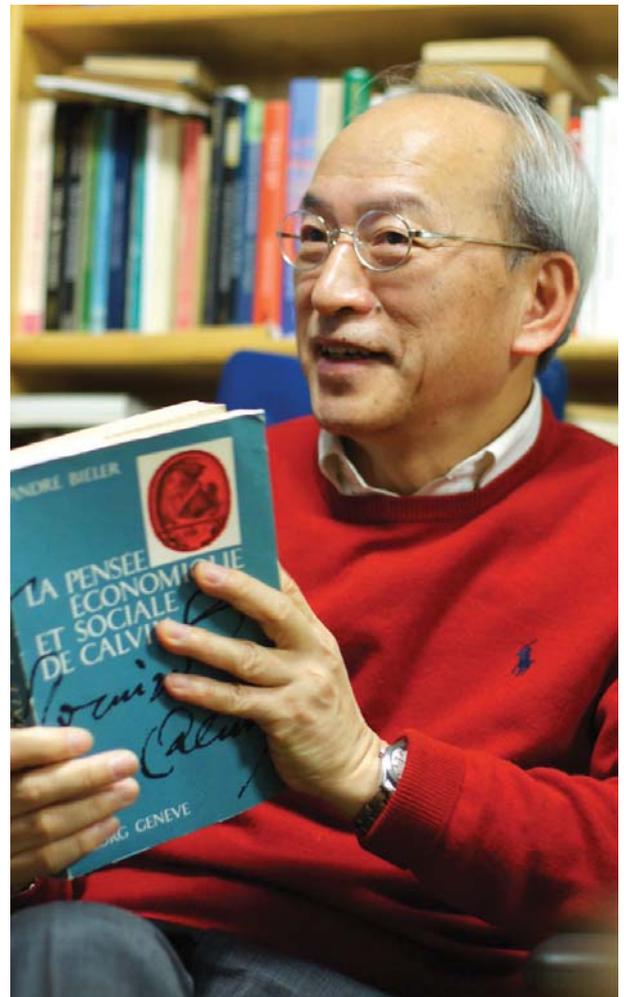
강영안(이하 강): 시원하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대학원 강의를 못하는 것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서강대에서 하던 대학원 강의를 이제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혼자서는 읽기 힘든 철학 텍스트를 대학원 수업 시간에 다뤘거든요. 1995년까지는 독일어로, 2000년까지는 불어로 된 책을 대학원 수업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대학원생들이 독일어나 불어로 된 책을 읽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를 다루어도 (우리말 번역서가 없으니) 줄곧 영어로 된 책으로 읽었죠.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이런 텍스트를 읽는 강의를 하겠어요?(웃음) 그러나 저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학교에 매여 강의를 하지 않을 뿐, 읽고 쓰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 강의하는 일은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되기 위해 공부한 것이 아니라 공부가 좋아서 했으니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겠지요. 그러니 은퇴를 해도 뭐 크게 바뀔게 없습니다. 집에서 하루 밥 세끼 먹는 게 사실 큰 변화겠지만요.

김: 은퇴하신 후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강: 지금까지 학교 일과 바깥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장 등 보직을 꽤 오래 맡았고, 외부 활동도 많았습니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틈을 더 만들어 좀 더 집중해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지요. 강의할 때에는 늘 난해하고 두꺼운 서양 책들을 읽고 준비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강의가 없으니 한 주제에 집중해서 읽고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논문 쓰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 110편정도 썼으니까요. 책은 15권 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쓴 책은 열추 33권이 넘습니다.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책을 더 많이 썼으면 해요.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책은 논문이 쌓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논문 쓰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요.

김: 건강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창의적인 생각은 점점 성숙해질테니 은퇴, 65세라는 나이에 얽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 그렇죠. 학문하는 사람에게는 연령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다만,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것은 책을 읽어도 30~40대에 읽었을 때보다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논문을 써도 칸트나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워낙 빠삭하게 읽었으니까요.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어느 부분, 어느 페이지를 봐야 하는지 대강 아니까요. 그런데 갈수록 한 철학자의 텍스트를 읽고 그의 사상을 다루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대신, 제 자신의 생각을 좀 올곧게 밀어붙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제 생각, 제 소리, 제 말을 쓰는 것은 수월합니다. 기억력에 의존할 필요 없이 생각을 논리적이고 올곧게 밀어붙이는 것은 나 이와 상관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책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1년 지내면서 책을 800권 넘게 사왔습니다. 읽을 것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읽는 것은 생각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먹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듯이 읽지 않고서는 생각을 활발하게 펼쳐 나갈 수 없습니다. 읽기를 게을리하면 생각이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각해야 하고, 물어야 하고, 따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토론하거나 쓰는 겁니다. 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쓰고, 또 쓰고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과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사고가 확장됩니다. 생각하면서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것이 학자의 삶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공부하든 간에 학자는 끊임없이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이 네 가지 활동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활동 모두에 생각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의 삶에서 생각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묻고 답하고, 다시 묻고 다시 답하는 과정이 개입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려면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해야 합니다.

김: 교수님께서서는 기독교 철학을 전공하셨으니 신앙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는 데 비교적 수월하셨을 것 같습니다.

강: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고등학교 때 파스칼과 키에르케고어,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기독교 철학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그 당시는 이분들을 실존주의의 원조로 볼 때였지요). 그런데 저를 철학으로 안내해 줄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지요(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했는데 중학교 학적부를 보니 중1부터 이미 장래 희망이 목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록하셨을텐데 제 의견이 들어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기독교 철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카이퍼(Abraham Kuyper)와 바빙크(Herman Bavinck)의 신학 그리고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의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지요. 신학대학을 떠나 한국외국어대학교로 갔는데 입학하자마자 손봉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네덜란드로 가서 신학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손봉호 선생님을 만나고서는



저는 학자의 삶에서 생각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묻고 답하고, 다시 묻고, 다시 답하는 과정이 개입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려면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해야 합니다.

생각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군대 마치고 복학했을 때는 철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굳혔지요. 손봉호 선생님은 그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원래 목사나 신학자가 되어야 할 사람을 철학자가 되게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웃음)

저는 처음부터 신앙과 학문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보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별로 없이 빨리 시작했다고 할 수 있지요. 신앙과 삶, 그리고 학문이라는 삼각구도가 오랫동안 저에게 학자로서의 삶을 지탱해주었습니다. 저는 총 4곳의 대학을 다녔습니다. 고려신학대학(고신대 전신), 한국외국어대, 벨기에 루뱅대 그리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이지요. 이 중 한국외국어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독교 대학입니다. 또 제가 적어도 1년 이상 전임 교수로 가르친 대학도 4곳인데요. 네덜란드 레이든 국립대학, 계명대, 서강대, 미국 칼빈대입니다. 이 가운데 제일 오래 가르친 곳이 계명대(4년)와 서강대(25년)입니다. 그런데 레이든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독교 대학들입니다. 그러니 저는 주로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하고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친 셈입니다. 기독교대학, 기독교

학문, 기독교윤리. 다시 말해 신앙과 학문과 삶은 저와 뗈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강: 손봉호 교수님은 왜 미안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신앙과 학문의 조화를 위한 교수님의 역할은 신학자가 되나 기독교 철학자가 되나 변함없었을 것 같은데요.

강: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때는 신학자인지 철학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야의 신학자라도 (국내 학자보다는 오히려 외국 학자들과 만날 때) 대화의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신학과 철학의 구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손봉호 선생님의 경우는 누구보다도 저에게는 롤 모델(role model)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마 손봉호 선생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려 했을 겁니다. 손봉호 교수님은 지금까지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서도 누구 못지않게 교회를 위해 활동하시잖아요. 목사나 선교사 못지않게 교수로서, 장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게 한 분이 손봉호 선생님이십니다.



강: 올해 <월드뷰>에서 한국 교회의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다룰 것입니다. 여러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사회활동이나 시민운동에 왕성히 참여하시게 된 신앙적 배경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강: 손봉호 교수님이나 이만열 교수님, 그리고 저나 부산대 김유신 교수, 경산대 백종국 교수, 모두 고신 출신입니다. 학자로서 활동하거나 시민운동에 깊숙이 참여하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고신에서 배운 신앙 유산입니다. 고신은 화란 개혁주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별히 카이퍼 전통(Kuyperian tradition)이지요. 저도 잘 알고 가깝게 지내는 기독교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나 알빈 플랜팅가(Alvin Plantinga), 손 교수님, 저 모두 기본적으로 카이퍼리안들입니다.

카이퍼리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세상의 삶, 이 세상 살이에서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영역이 모두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고신 측에

SFC(Student for Christ)라는 학생신앙운동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SFC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구호가 바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학문, 예술, 교육, 법 등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배웠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신은 신학과 정치, 그리고 사회를 보는 관점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사실 그렇긴 해요) 고신의 학생신앙운동을 통해 자라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자, 교사, 기업 경영인, 또는 주부가 되더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배우고 자랐어요. 고신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다. 손 교수님이나 이만열 교수님, 저나 백 교수의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삶에서 (어느 정도) 진보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은 고신에서 배운 신앙 유산 때문입니다.

강: 칼빈은 개인적인 구원과 사회에 대한 관심 두 가지 면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 전통을 신 칼빈주의(neo-Calvinism)라 부르는데 칼빈의 정신을 상기시킨 정도입니까, 아니면 사회참여를 더 강조한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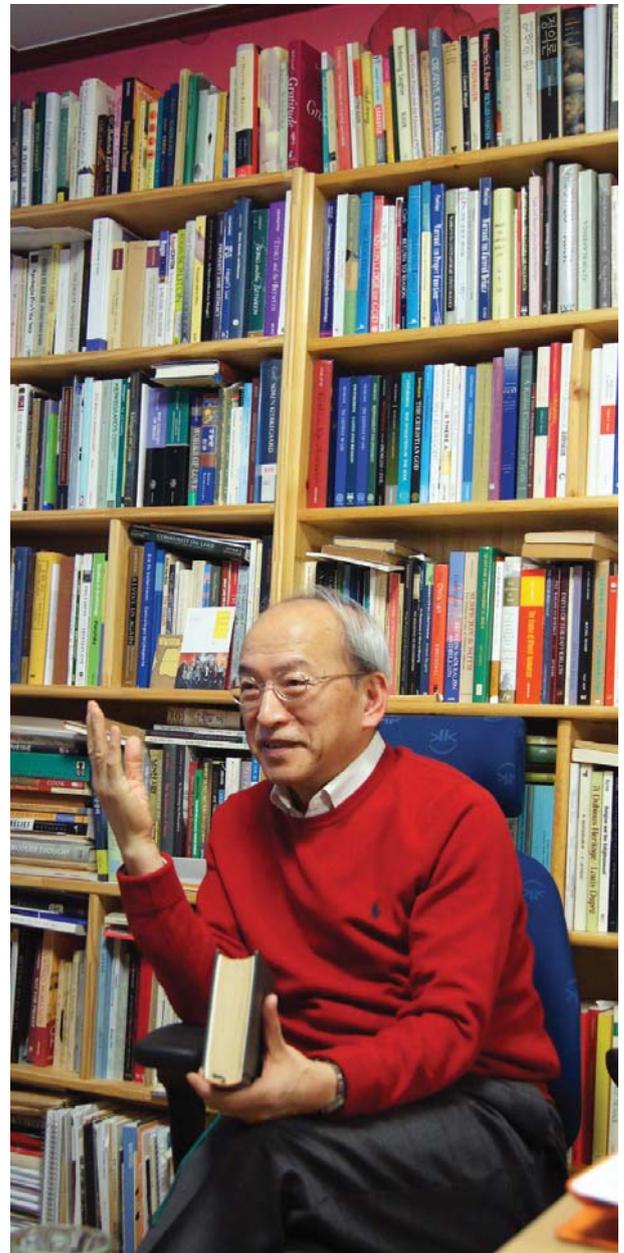
강: 칼빈에 대해서는 어떤 눈으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에게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면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훨씬 중요하고, 신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우위를 두고 생각을 하면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전통적 기독교 사상이 있습니다. 월러스(Ronald S. Wallace)는 칼빈 신학의 이러한 면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경제사회사상』(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 de Calvin)이라는 책을 쓴 앙드레 비엘레(Andre Biéler)의 증언을 들어보면 칼빈은 놀랍게도 (막스 베버의 주장과는 달리)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빈이나 루터가 교회개혁을 통해 일으킨 큰 변혁 중 하나가, 청소를 하든 학문을 하든 무얼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

사가 자신의 일을 주께 하듯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청소부가 자기 일을 주께 하듯이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 정신을 루터나 칼빈이 공유한 것입니다. 칼빈은 1564년에 죽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실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출현과 과학혁명, 산업혁명, 계몽주의 등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회체제의 문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퍼는 기독교가 사회문제에 관여하는 방식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기본 골격,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자본주의나 자유주의 등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곧 '건축술적 비판(Architectonic Criticism)'을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사회문제에 제대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가난을 산출시키는 사회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카이퍼 사상이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카이퍼라고 하면 1898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행한 『칼빈주의 강연(Lectures on Calvinism)』 정도만 알고 있지요.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카이퍼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카이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카이퍼 강좌가 생겨 해마다 주요 인사들이 연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한창 논의되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서도 카이퍼 사상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신학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신학을 교회로부터 해방시켜 사회와 공공영역으로 가져와서 공공의 문제를 다루려는 것입니다. 신학이 지역적(local) 역할을 벗어나 공공(public)의 영역과 세계(global)의 영역에서도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방향이 신학과 교회에 건강한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카이퍼의 저서는 영어로 번역된 것이 그리 많

지 않습니다. 최근 그의 '일반은총'(De Gemeene Gratie)(저는 이것을 '공통은혜'라고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이란 책(3권)이 영어로 거의 번역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번역이 완료되면 카이퍼의 사상이 좀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겠지요. 그의 사상을 제대로 공부하고 잘 가려내어서 현재 한국 그리스도인이 처한 삶의 상황에 적용해 볼 때라고 생각해요.



강: 아브라함 카이퍼와 함께 도예베르트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카이퍼리안은 말해도 도예베르디안(Dooyeweerdian)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강: 도예베르트도 카이퍼리안이었습니다. 카이퍼리안이면서 철학하는 방식이나 틀은 도예베르트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드뷰>에 대답이 나간 적이 있는 헝크 헤이르츠마(Henk Geertsema)나 산드르 흐리피운(Sander Griffioen)(이 두 분은 모두 손 교수님과도 절친한 관계입니다만) 같은 분들은 도예베르디안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도예베르디안들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카이퍼리안입니다. 카이퍼리안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 종교를 삶의 한 부분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삶이 곧 종교라고 보는 입장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반 러너(H. Evan Runner) 교수의 은퇴 기념 논문집 제목이 <Life is Religion>입니다. 삶의 어느 한 영역도,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예술이든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저는 카이퍼 전통을 통해 칼빈주의의 핵심은 예정론보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만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 하셔서 결국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성생활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휴식하는 모든 것이 신앙의 영역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의 영역이 됩니다. 이것은 신앙과 삶의 통합 문제가 아닙니다. 통합이라는 말은 분리를 전제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학문은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았습다. 하나의 삶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하나의 신앙이라 보면 어떤 학문이라도 바탕에는 모종의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이퍼리안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integr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 한국 교회가 세상과 삶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선교사들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결국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이해와 관심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를 목사만 해야 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故)김인수 교수님께서도 한동안 <복음과 상황>에서 "은사 가진 사람이 설교해야 한다"는 지상 논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원을 그려봅시다. 그 안에 교회를 두고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원을 그려보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혹은 성도들의 모임이라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부르신 성도들을 키우시고 다시 세상으로 내어보내시죠.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를 정치영역, 경제영역, 교육영역, 예술영역, 학문영역 등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분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사례를 받고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전념하는 **교회 전임 사역자**들과 **비전임 사역자**로 구별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를 포함한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전적으로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 대부분을 이루는 비전임 사역자들의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가정과 직장, 시민사회 영역 모두 성도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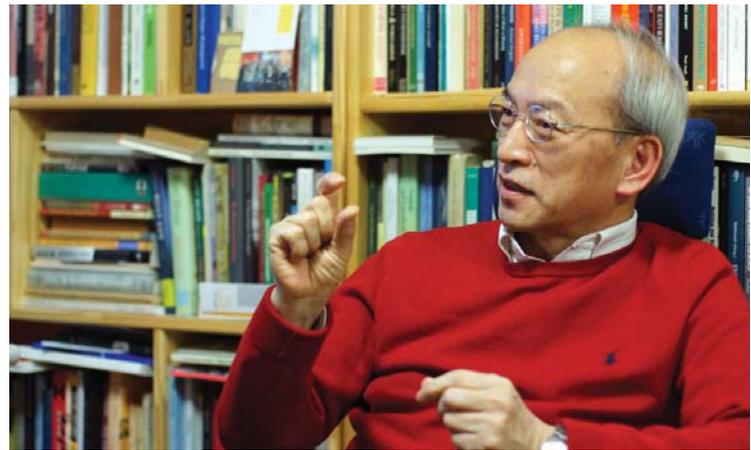
만일 이렇게 본다면 예배 중의 설교는 1차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전임 사역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의 영역이 전임 사역자들과 달리 교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성도의 삶에

관한 부분은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누가 말씀을 더 잘 비추어 권면하고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삶의 영역에서 성숙된 성도들이 장로든 집사든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예배중의 설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공부 형식을 취하든 강의 형식을 취하든 간증 형식을 취하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신앙 생활의 분리가 이로 인해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설교를 목사의 독점적 권리로 여기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담임목사가 설교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목사가 수십 명 있어도 말이죠. 대개 목양은 부목사가, 말씀선포는 담임목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 교회들의 모습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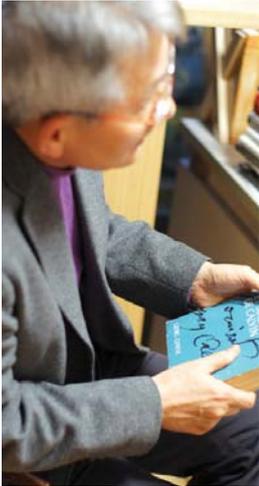
강: 부목사에게 주일 설교를 맡기지 않고 담임목사가 전담하는 것은 목사의 직위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다 같은 목사입니다. 담임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또 부목사들 간에 서열이 있는 것은 사실 천주교 전통과 닮았습니다. 천주교에는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습니다. 주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의 직분이고, 사제는 장로, 부제는 집사의 직분으로 주교-사제-부제 3직이 로마 가톨릭의 성직제입니다. 이러한 성직제를 해체하고 새롭게 한 것이 종교개혁인데, 그것이 목사, 장로, 집사 3직 제도입니다. 칼빈은 여기에 교사직을 첨가했지요.

현재 목사와 부목사 개념은 천주교의 직분 개념이 개신교에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목사가 같은 목사와 함께 사역한다는 동사(同事) 개념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 사이에 계급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주일 설교는 담임목사가 담당하고 부목사는 교구나 한 부서를 맡아야 한다는 통념이 생겼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담임목사가 성도들과 접촉하는 일이 거의 없



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모른 채 설교만 하는 식으로 고착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신앙 생활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각자 영역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비전임 사역자로 자기 삶, 자기 영역에서의 깨달음과 경험을 교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단순히 일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곤 하거든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목회하는 분들이라면 이 면을 오히려 저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 알고 계실 거예요.



강: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초신자 단계, 구원의 확신 단계, 부단히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을 살아가고자 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단계가 있다고 볼 때, 목회자의 역할이 신앙의 초기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을 부딪

쳐 살아내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조명해줄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초신자 교육을 1:1 양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교인들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 그렇지요. 초신자가 신앙에 입문하는 단계와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고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일은 오히려 각 분야에서 고뇌하면서 부딪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몫일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소한 세 가지 필요조건이 있다고 봐요. 첫째,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 둘째 삶에 대한 깊은 이해, 셋째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고뇌에 대한 경험. 제대로 된 제자훈련이라면 이런 조건을 갖춘 지도자들이 투입되어야 해요. 목사가 담당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은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원리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 삶으로 경험하는 부분은 오히려 성도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도 전문 목회를 위한 신학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한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강: 우리는 그것을 '세계관 교육'이라고 하지 않나요?

강: 좁은 의미에서의 세계관 교육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해, 교회 역사에 대한 이해, 교리에 대한 이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러한 신학적 소양이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세분화된 신학까진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이 무엇인지, QT 정도가 아닌 깊은 신학적 성찰과 교회사 전통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윤리와 상담, 설교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신학적 소양 교육이 일반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을뿐더러 세상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신앙으로 성속하지 않고 목사신앙에 머물고 맙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숙한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라도 성도들에게 신학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신학적 소양부족(theological illiteracy)에서 벗어나 신학적 해독능력(theological literacy)을 필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고 성숙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지요. 참된 신학을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way of life'입니다. 삶의 방법이자 삶의 길, 삶의 방식이지요. 제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신학입니다. 이론 이전에 실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관이 세계에 대한 대단한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듯, 삶의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성찰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에는 양면, 아니 세 면이 있다고 해요 할까요? 삶 자체가 신학이고 그 삶에 대한 성찰이 신학인 것이지요. '삶으로의 신학'과 '삶의 길로서의 신학',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로서의 신학'을 성도들이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어딘가에 써먹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형성하기 위해, 성도로서 제대로 성숙된 지경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신학' 곧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theo-logy)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doxo-logy)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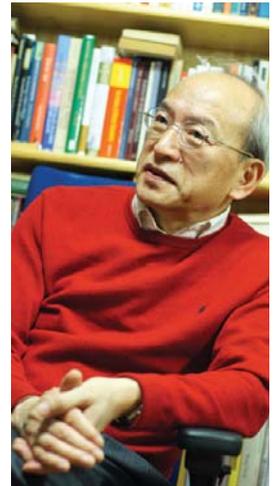
김: 그렇다면 교인 중 준비가 된 사람들이 설교를 담당하고, 교회의 전임 사역자는 신자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교회 안에 기초적인 신학 과정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 화란 개혁신교회의 경우,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 훈련이 되어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되면 노회에서 '설교권'을 허락합니다. 손봉호 교수님의 선생님이요 저의 선생님이기도 하셨던 반 퍼슨(C.A. van Peursen) 교수님도 설교권을 받아 자주 설교 하셨습니다. 철학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현 시대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어 많은 기여를 하셨지요. 물론 성도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토대로 설교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한 성경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설교는 간증이 아니니까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저는 성도들의 설교 참여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때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더욱 풍성하리라 생각합니다.

김: 지금 다니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담임목사님 청빙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압니다만.

강: 담임목사 청빙에는 암묵적인 기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개혁주의 전통에서 제대로 공부한 분이어야 하고요. 또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주일학교로 흩어져 공부를 하는데, 이처럼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익숙하거나 동의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와 삶 속에서 사역하는 흩어진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균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분이어야 했지요. 이 세 가지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언약백성'을 강조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통에서는 세례 받은 아이들을 성찬에서 배제했습니다. 언약백성이라고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아이들을 성찬에서도 배제시키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배제한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세

이후 배제되었지요. 제가 속한 교회는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의 모임을 통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청빙의 1차적 단계는 교회에 대한 이런 그림을 분명하게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청빙 공고를 내진 않았습니디. 목사를 채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에게 부탁하여 몇 분 추천을 받았고, 설교도 듣고 긴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신앙과 삶, 가정과 교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청빙위원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담임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김: 일반적인 교회와 다른 방식이라 구하기 어려우셨던 게 아닌가요?

강: 많이 힘들었지요. 마땅한 목사님을 찾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굴 모셔도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목회자들이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어린 시절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릴 때 받은 상처를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석사(M.Div.) 과정에서는 목회상담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발견입니다. 자기 속의 상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주로 가정 문제 혹은 자라면서 만난 관계 안에서의 상처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개인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서 치유 받도록 학교가 돕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목회자가 되어서도 타인에게 비슷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상담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신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게 되면 대개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을 롤 모델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신학교에서의 공부는 일종의 라이선스를 따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신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영적 투쟁과 성품의 변화가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세계관동역회 분들과 함께 존 스토틀(John Stott)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존 스토틀 목사님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존 스토틀 목사님은 교회 문제는 신학교 문제이고, 신학교 문제는 신학교 교수들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은 이런 말이 듣기 싫겠지만요. 아니, 억울하게 생각하겠지요. 왜냐하면 신학 교수들의 교회 영향력이 옛날에 비해서 크지 않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영향력이 신학교 교수들보다 훨씬 크지요. 그러니 신학 교수들도 기회만 있으면 큰 교회 청빙에 곧장 응하잖아요.

강: 지금까지 줄곧 지식과 관련된 영역에서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러실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강: 인문학 강의를 할 때 지식이 무엇인지 얘기하기 위해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전거 비유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지식을 배울 때 정보 획득을 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자전거를 보십시오. 자전거 구조와 원리만 수십 번 생각하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에 올라타야 탈 수 있습니다. 철학을 해야 철학을 알게 되고 신앙 생활도 해봐야 신앙을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때처럼 중요한 것은 '올라타는 것'입니다. 올라타면 비로소 문제가 생기죠.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신앙 생활도 해봐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올라타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쳐 봐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무신론의 문제, 종교 갈등과 관련된 다원주의와 배타주의의 문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공주의와 소비주의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저는 성도들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전거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지요. 그래야 자전거인지 승용차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올라타야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야 변화가 뒤따라옵니다. 단순히 'Information'을 얻는 것이 아닌 'Transformation'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지식은 정보에 머물지 않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전거에 올라타면, 지금까지는 자전거를 보고 이야기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 바뀌지요. 마찬가지로 신앙 생활도 신앙 생활에 '올라타면' 이제까지는 신앙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변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전거를 신나게 타는 것이지요. 공부도 하다 보면 신나게 하게 됩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로이지요. 숙달이 되면 재미가 있고 즐거워집니다. 이것이 저는 정보와 변화를 거쳐 즐김과 누림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해요. 정보를 얻다가 실제 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점점 성숙해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지식, 제대로 된 얇은 Information에서 Transformation으로, 그리고 Transformation에서

Enjoyment로 발전된다고 생각해요. 정보에서 변화로, 변화에서 즐김과 누림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도 이제 신앙에 관해 말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신앙에 제대로 ‘올라타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고 누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나는 첫 질문에 대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이라고 답합니다.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1단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2단계 그분을 따라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3단계에 들어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공부, 우리의 삶이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따로, 삶 따로, 학문 따로 분리되어 사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Learning by Practice”, “Learning by Doing”, 곧 실천을 통한 배움, 행함을 통한 배움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학문, 우리의 교회생활, 이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앞으로 무얼 하고 싶으신가요?

강: 앞으로 몇 년간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싶은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학문적인 일들로 크게 두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적인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유럽과 영미 기독교 철학 전통,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아시아 전통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을 기독교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상적 삶을 일상적 삶으로 만드는 것은 초월과 연관됩니다. 일상속의 비일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도 힘을 얻는 것이죠.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일상의 영역은 먹는 것, 자는 것, 옷 입는 것, 집짓고 사는 것, 일을 하는 것, 휴식하는 것, 생로병사 문제 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대철학에서 신의 문제입니다. 유럽 철학과 영미 철학 전통에서 발전된 철학적 신학과 기독교적 인식론을 지금 한창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두 과제는 학문적인 프로젝트이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봉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십계명과 사도신경에 관한 강의를 해왔고 이미 부분적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올해 안으로 당장 하고 싶은 것은 신앙에 관해 묻는 책 한 권을 마무리하고 한국 교회가 직면해 있는 세 가지 도전에 관한 책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무신론의 문제, 종교 갈등과 관련된 다원주의와 배타주의의 문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공주의와 소비주의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저는 성도들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관동역회에도 좀 더 자주 나가야겠지요.(웃음) 한국철학회 회장직은 얼마 전에 벗어났고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장직은 아직 맡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과 관련된 인문학대중화위원회 위원장 일도 다시 맡았습니다. 고신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일에도 헌신할 것입니다. 결국 저의 삶은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 대학, 기독교 윤리, 이 세 축, 삼각구도가 하나로 어우러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월급 대신 연금으로 생활해야 되는 게 큰 변화라면 변화겠지요.(웃음)

김: 정말 기대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영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벨기에 루뱅 대학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칸트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네덜란드 레이든 국립대학교와 계명대학교를 거쳐, 현재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 『타인의 얼굴』,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강의』,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등이 있다.